

혁신도시 공공기관 근로자 정규직 전환 속도

한전KPS 294명 직접고용 전환 1100여명은 논의 중

한전KDN 160명 전환... 한전, 자회사 설립 고용 유력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 땀 혁신도시 정착률 높아질 듯

빛가람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규직 전환으로 안정적인 고용환경이 조성되면 덩달아 혁신도시 내 정착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전KPS는 지난해 12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정규직 1400여명 중 기간제 근로자 294명을 직접고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파견 용역과 소속 외 근로자 1100여명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방침도 현재 논의 중이다.

한전KPS의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규직 전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 전환 및 창출 T/F팀과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한전KDN도 정규직 전환 대상자 258명 중 160명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가급적 많은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는 게 한전KDN 측의 설명이다.

한국전파통신진흥원은 지난해 10월 기간제 근로자 7명을 직접 고용형태의 정규

직으로 전환을 마친 상태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29일까지 파견용역직 중 전환대상자 83명의 정규직 채용을 확정했으며, 오는 2019년 4월까지 대상자 전체를 채용할 계획이다.

전력거래소는 전환대상인 기간제근로자 3명은 이미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으며, 소속 외 근로자 108명도 올해 44명과 내년 64명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나머지 공공기관들도 정규직 전환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도 현재 농사협의회 운영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전력 역시 아직 현재 협의를 진행하

고 있는 중이다. 직접 고용대상자 외 검침과 점검인력 등 나머지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aT와 마찬가지로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경영평가 항목에 정규직 전환 배치 책정이 높아진 만큼 상당수 공공기관은 정규직 전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이들의 고용형태가 안정되면 혁신도시에 정착 인구도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들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나서고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농어촌 公 지역별 맞춤형 물관리 나선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국지성 가뭄 등 기후변화 속에 농업인들이 걱정 없이 영농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물관리에 나선다.

23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5년간 주요 가뭄지역을 중심으로 용수공급 현황 모니터링과 축적된 물관리 데이터분석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용수확보와 공급방안을 마련

가뭄이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도 시범 사업을 통해 연중 활용이 가능한 지하 담 건설 예정지 조사(예비 후보지 472 지구)에 나서는 등 용수 확보를 위한 방법도 다각화할 예정이다.

극심한 가뭄 시 염도 상승이 우려되는 간척지의 경우 지역주민과 물관리협의회를 구성해 수량·수질에 대한 정보를 교환, 대체 수원공도 마련해 주민들의 불안감 해

54개 저수지 준설 233만t 용수 추가 확보

간척지 물관리협의회 구성 대체 수원 마련

연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저수용량 확대를 위해 토사 퇴적으로 용수확보 능력이 떨어진 전국 54개 저수지에 준설을 실시해 233만t을 추가 확보한 상태다.

평년대비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는 영농기 전까지 저수지 물채우기 등을 통해 오는 6월 926만㎡의 용수를 추가 확보, 평년대비 90%이상 저수율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용수확보가 어려운 도서지역과 평야부 등의 주수원공이 고갈될 경우를 대비해 인근 하천의 여유수량을 활용한 물길잇기(7개소), 지하수 관정 개발 등도 펼칠 계획이다.

용수공급이 필요하거나 상습적인

또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과 손잡고 기관별 산재돼 있는 수자원의 공유로,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합동 대응도 추진한다.

현재 진행 중인 협력사업은 전남지역의 부족한 생활용수를 장성호 같은 농업용 저수지에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수자원 공동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이종욱 수자원관리 이사는 “가뭄 등 기후변화가 일상화된 만큼 영농기 전 수자원 확보는 물론, 지역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며 “지역적 특성과 수자원 관련 데이터분석을 통해 최적의 물관리 대책을 수립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지난 22일 한전KDN은 본사 교육관에서 열린 '제1기 SW교육강사 양성과정' 수료식에서 수료생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전KDN 제공〉

한전KDN ‘SW 교육강사 양성과정’ 수료식

조선대생 30명 참여

한전KDN(사장 임수경)은 지난 22일 본사 교육관에서 ‘제1기 SW교육강사 양성과정’ 수료식을 진행했다.

이날 수료한 조선대학교 재학생 30명은 지난 3주간 총 120시간 교육에 참여했으며, SW교육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코딩지도사 2급, 언플러그드 지도사, COS 2급 자격증 등 총 3개의 SW교육 관련 자격증도 취득했다.

SW교육강사 양성과정은 한전KDN이 주관하고 조선대와 전남도교육청이 참여, 수료생들은 도교육청이 선정한 전남지역 초·중학교에서 SW교육기부 봉사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SW교육기부 봉사활동을 통해 학점도 인정받고 직업현장체험의 기회도 갖게 된다.

한전KDN 관계자는 “수료식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SW교육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쌓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SW교육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도 기여하는 등 뜻깊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참여 연구기관 모집

다음달 21일까지 신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김영준)이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지정공모에 참여할 연구기관을 공개모집한다.

오는 26일에는 서울 중구 CKI기업지원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공모되는 올해 신규 지정공모 과제는 ‘문화콘텐츠’(애니메이션, 방송·영상분야) 2개 과제 ‘문화예술’(공연, 전시, 융복합분야) 4개 과제 ‘문화융복합’(디자인·융복합, 전통문화분야 등) 6개 과제 등 총 3개 부문에서 12개 과제다. 모두 88억원의 국고가 투입된다.

올해는 제안요청서(RFP)에 주제와 최

종 목표만 제시한 신청기관의 창의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품목지정형’ 과제를 확대했다.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한 전문가는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제하는 등 공정성도 강화했다.

이번 공모에는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기업 및 제작기업, 연구기관·민간단체 등 누구나 지원가능하며 다음달 21일 오후 4시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http://ctrd.kocca.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자유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문화기술 연구개발 자유공모 사업(단비)’은 2월 중에 공고될 예정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을 주목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7대 이슈 공개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 김석환)은 23일 4차 산업혁명시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올해 주목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7대 이슈를 선정한 관련 보고서를 공개했다.

KISA는 국내외 ICT 관련 기사, 연구보고서, 논문 등에서 언급된 44만여개 관련 키워드 추출, 최근 동향 및 자료를 분석해 30개의 중요 키워드를 도출했다.

50여명의 전문가 대상 설문과 자료 검토, 논의 등을 거쳐 개인정보보호 7대 이슈를 최종 선정했다.

개인정보보호 7대 이슈는 국내·외 개인정보보호정책 변화에 따른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본격 시행(2018년 5월 25일) 및 기업의 대응 ▲개인정보보호 적용 설계(Privacy by Design)의 사례 발굴 및 보급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및 맞춤형 개인정보

활용가이드(Code of Conduct)의 활성화 ▲데이터 내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위해 요구되는 갈등 해소 ▲개인정보 국외 이전·데이터 국지화 제도 등 자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심화 ▲사업장 감시와 근로자 프라이버시의 상충 ▲바이오정보 빅데이터 시대에 따라 증대되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 등이다.

KISA 정원철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이슈를 토대로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정책 시행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게 개인정보가 보관·취급될 수 있도록 컨설팅지원, 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 개인정보보호 적용 설계(Privacy by Design) 보급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8년도 개인정보보호 7대 이슈 보고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자료실(www.kisa.or.kr)에서 다운로드 및 확인 가능하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CMTECH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유사품,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Step 1. 방수정리
Step 2. 단열방수시트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오페라지 제원키랄로그와이비인더로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징점

- 1/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2/ 건축 내외장제 패턴디자인너 잔 엔디나와의 클라보 디자인!
- 3/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헛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4/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2-3년만 가린 된다고요?
20년을 가는데...!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2중단열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총문문화센터 옥상시공

시공사례

상명대학교/광명군보건소/대전대학교/태백시보건소
안성시립도서관/강화군청/인제군청/부천소방서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511-0444

010-6603-040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